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Daishin's View

중국 증시
서서히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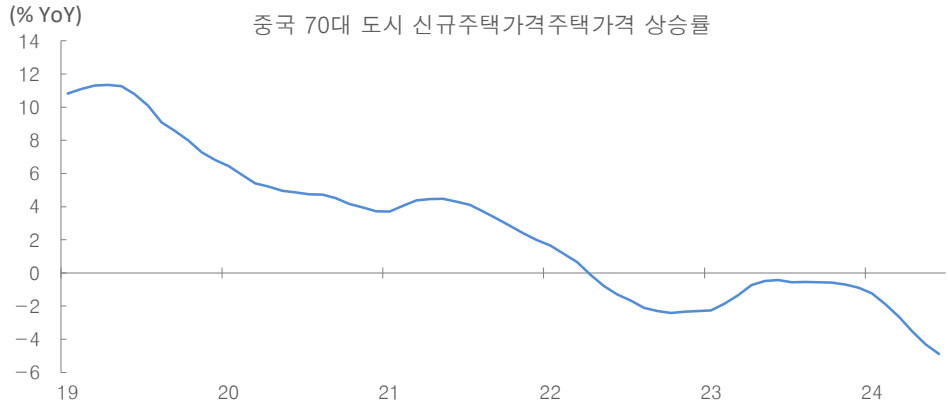
- 인민은행, 7월 LPR 인하 통해 3가지 시사
- 중국 증시, 4/4분기 기점 박스권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여줄 여력 확인
- 미 연준 금리 인하 거듭될수록 인민은행 금리 여력 커질 것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중국 증시(상해종합지수)가 박스권 상단(3,250p)을 뚫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 의지가 통화정책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꺼내들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유발된다는 점이다. 이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유출이 확대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돼, 위안화 가치 하락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인민은행의 7월 MLF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7월 LPR(1년, 5년) 인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3가지를 시사한다. 1) 부동산 침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점과 2) 美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 단행을 통해 강도 높은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그리고 3)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이 최근 엔화강세+일본증시 하락과 함께 넌지시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됐다.

중국은 중진국 함정 영향권, 부동산 침체, 가계 채무 상환 부담 등 구조적 경기 둔화 요인을 짊어지고 있지만, 인민은행의 7월 LPR 인하를 기점으로 상해종합지수는 올해 4/4분기 박스권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여줄 여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 美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하면, 중국 정책 당국은 통화완화정책을 꺼내들기 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중국 증시의 향방을 결정하는 key를 연준이 쥐고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과 함께 금리 인하가 거듭될수록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은 커질 것이다. 이는 중국 증시가 박스권을 뚫고 상승 보폭을 넓혀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림 1. 미-중간 금리차 축소 기대. 인민은행,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한 정책 의지 확인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문남중)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